



■ 남상도(전북지부 사무국장)…남국장을 비롯해 전북지부 전직원은 요즘 모든 일이 즐겁다는데….

웬일인가 했더니, '87년도 우수지부로 선정된데다가 장려금까지 받았으니 하는 일들 마다마다에 힘이 절로 솟는단다.

올해도 최우수지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들에게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.

■ 문익수(본부 사업부 사업과장)…지난 며칠동안 홀연히 사라졌던 그. 어느날 밝은 얼굴로 다시 나타났다.

일본 나고야 공중 의학 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연구소를 견학하고 돌아왔다는 그는, 우리나라도 일본 건강관리 사업체재만큼 발전할 날로 멀지 않은 것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.

■ 마희연 (본부 홍보부 홍보과장)…건강을 최고의 재산으로 자부하던 그가 지난 1월에는 뜻밖의 병-충수염-을 발견해 수술까지 하기에 이르렀었다.

“건강”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 어떠한 질병이든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했던 그. 지금은 예의

건강한 모습을 되찾고, 여전히 일과 술을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다.

■ 이춘만(경북지부 근무)…건강관리사업 추진에 밤낮을 잊었다는 그는 그 성실함만큼 남의 별명 짓기에도 명수인가보다.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재미있는 별명을 하나씩 붙여주어 웃음을 자아내고, 분위기를 즐겁게 해준다.

■ 조미자(본부 총무부 근무)…평소 새침한 듯 하면서도 다정스런 모습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해온 조미자씨.

최근들어 유난히 화사해지는 얼굴이 그녀에게만 봄이 먼저 온 것인지 착각을 느끼게 한다.

그녀는 오는 4월 23일 1시 신촌 현대예식장에서 회사원인 이 연구씨와 평생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.

